



‘청정장흥’ 철통방역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장흥 선관위 투표 독려 캠페인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장흥토요시장과 탐진강변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 공포로 투표 참여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장흥군선관위는 선거일에 장흥지역 사전투표소 10곳과 투표소 20곳에 대한 방역과 발열기 측정기 설치, 임시기표소 운영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전국서 쓴다

‘광고료·수수료 없는 앱’ 이재명 경기지사 상표 사용 요청에 승낙
군산시 “소상공인 아픔 함께 분담해야”... 전국 지자체 확산 기대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은 자체 개발한 공공배달앱의 브랜드 ‘배달의 명수’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의 대표브랜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군산시에는 전국 100곳이 넘는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배달의 명수’와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 군산시는 적극 협조해 공공배달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

의 명수’는 지난 5일까지 20여일 동안 처리한 주문 건수는 모두 6937건으로 1억6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첫날 5138명에서 출발해 지난 5일 현재 2만354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출시일 이후 가맹점 신청이 급증하며 입점 준비중인 업체 또한 증가해 군산시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배달의 명수가 거대한 민간 배달 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반 질주’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업소당 월평균 25만원 이상

을 아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민간의 배달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린다.
군산시는 최근 민간 배달 앱이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어 ‘배달의 명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가맹점 입점 신청과 소비자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의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모든 소상공인이 함께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

남원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동물보호센터(하나·청원 동물병원)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양비 신청은 남원시 축산과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면 된다.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6500만원을 지원해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추진하고 있고,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소·염소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군산시, 맞춤형 원스톱 창업컨설팅으로 정부지원 끌어낸다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선정에 유리한 정보 제공

군산시 청년들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업에 관한 정보와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이 부족한 지역 창업자에게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비해 사업계획서 작성법, 대면평가 등 기초단계 지원을 통해 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스피치 교육, 발표평가 사전 리허설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재 모집 중인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지원사업’,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정부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 등이다.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지원사업은 소셜벤처, 신재생에너지, 여성벤처 등 16개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전국단위 600명 내외로 선정,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최대 1억 원)과 아이템 실증 검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도전! K-스타트업 2020은 부처·지자체·민간합동 창업 경진대회로 예비창업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상금 15억8000만 원(최고 3억 원)과 본선 진출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이 이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경험이 적은 창업자들의 기획 역량 강화와 컨설팅 지원으로 군산지역의 창업자들이 정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구제역 유입 차단... 소·염소 예방백신 일제접종

정읍시는 구제역 유입 방지와 축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소·염소에 대해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을 높여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접종은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을 제외한 소 7만6472마리, 염소 1

만2145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접종반을 편성해 일제접종을 지원하고, 방목하는 사양 관리 특성상 표획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농가에는 보정반을 운영해 접종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모던 스타일